

2024 ANNUAL REPORT
활동 보고서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의 2024년을 돌아봅니다. 전쟁과 전쟁을 부추기는 신호들이 우리 일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은 1년을 훌쩍 넘겨 전례 없는 수준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한국의 무기기업들은 팔레스타인을 무자비하게 공격 중인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며 이윤을 남겼습니다. 군사비는 계속해서 올라 전 세계는 1분에 60억원을 군사비로 지출하며 전쟁과 전쟁준비를 멈추지 않았고, 군사적 긴장은 각지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군사활동으로 발생한 탄소배출과 에코사이드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생태적 연결망을 해치고 지속가능성을 악화시켜가고 있지만, 거대자본과 군사권력은 이마저도 ‘친환경 탄약’이라는 허울로 그린워싱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이어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벌였고,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 총과 탱크를 앞세워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격렬해지는 전쟁과 학살,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했지만, 전쟁없는세상은 우리의 역할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두박두박 걸음을 옮겨왔습니다.

‘전쟁거부’로 병역거부의 의미를 확장한 병역거부 프로그램은 징집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전쟁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방법론을 확장하고자 했고, 병역거부학교를 통해 동물권, 생태정의, 젠더 등과 교차하는 병역거부의 모양들을 찾아나가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 이전에 만들어진 병역거부 가이드북을 전면 개정하여 대체복무를 포함한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이들과 더욱 활발히 만나고자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전쟁 지역의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고자 국제적인 연대를 활발히 이어나갔습니다.

K-방산 신화는 소위 ‘방산도시’를 중심으로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호명되는 사이, 기존의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박람회저항행동’으로 전국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도권외의 제한적인 시민사회의 힘만으로는 무기산업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죠. 2024년에는 육군 무기박람회인 KADEX가 충남 계룡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의 인권, 평화, 시민단체와 처음으로 함께 캠페인을 꾸리며 무기산업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힘을 본격적으로 조직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쟁범죄국으로 이전되는 무기들을 감시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캠프: 기후액션캠프’, 북독크, 군사비감축 캠페인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제와 연결되며, 평화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넓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작년 한 해 활동을 통해 만났던 수많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낙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돌봄과 연대로 서로의 걸음 채워준 이들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은 내란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탱크와 군헬기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를 뒤흔든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의 행위는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군사주의의 해악을 다시금 일깨웠고 비폭력 시민저항의 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의 세계”는 분명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2025년, 그 세계의 가운데 평화라는 단단한 기둥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권리와 저항할 권리를 튼튼하게 세우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세우는 일, 전쟁없는세상도 열심히 함께 해보겠습니다.

목차

02 인사말

04 전쟁없는세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6 전쟁없는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08 2024년 주요 활동: 병역거부 학교

10 2024년 주요 활동: 병역거부 가이드북

12 2024년 주요 활동: 태국, 러시아 병역거부자 지원

16 2024년 주요 활동: 무기박람회 KADEX 저항행동

19 2024년 주요 활동: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 감시

21 2024년 주요 활동: 무기산업&대체복무 정보공개 활동

23 2024년 주요 활동: 기후액션캠프

26 2024년 주요 활동: 이스라엘 전쟁범죄 대응

28 2024년 전쟁없는세상은 그밖에 무엇을 했나요

36 2024년 타임라인

38 전쟁없는세상 2024 재정보고

40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인들

41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세요

전쟁없는세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창립 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무기박람회 저항 프로그램’,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1

무기박람회 저항 프로그램

무기거래와 무기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 무기박람회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ADEX, KADDEX 등 국내 4대 무기박람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무기박람회 행사장에서 무기거래를 방해하는 액션을 합니다.

2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

병역거부를 비롯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는 개인들의 시민불복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반전운동으로 조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역거부 난민 지원, 병역거부자 상담 및 대체복무제 개선, 그리고 새로운 전쟁거부 사례를 발굴하는 활동을 합니다.

“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쟁없는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각 활동기구는 전쟁없는세상이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입니다.

총회

전쟁없는세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매년 초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운영위원의 인준 및 해임, 예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등 단체의 기본적인 구조와 활동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운영 위원회

총회는 단체의 운영을 위해 상설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합니다.

2024년 운영위원: 가람, 오리, 용석, 쭈아, 몽치, 쥘, 우공, 악희

사무국

각각의 프로그램/캠페인 활동을 코디하는 동시에 전쟁없는세상의 홈페이지, SNS 관리, 재정 및 회원 관리 등 단체의 관리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2024년 사무국 활동가: 오리, 용석, 쥘

활동 기구

전쟁없는세상은 캠페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메인 프로그램 외에도 ‘마음의 소리 위원회’, ‘모금홍보 위원회’,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주요 활동기구



무기박람회 저항 프로그램 (저항자들)

무기박람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축소, 중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2024년 저항자들에서는 주, 오리, 쥘야, 아침, 재욱이 함께했습니다.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 (거부자들)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시민들을 조직하고 전쟁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 캠페인을 합니다. 2024년 거부자들에서는 용석, 뭉치, 안악희, 가람, 이담, 두부가 활동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군사주의 TF

전쟁없는세상이 반군사주의 활동 맥락에서 기후위기 관련 캠페인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단하기 위해 만든 TF로 오리, 쥘, 랑, 펭귄이 활동했습니다. ‘2024평화캠프: 기후액션캠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소리 위원회

사무국원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슈들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가람과 쥘야가 구성원입니다

모금홍보 위원회

전쟁없는세상 특성을 잘 살려 모금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용석, 쥘, 우공, 뭉치, 승호가 모금홍보 위원회 구성원입니다.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 트레이닝 진행자(촉진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2024년 주요 활동

병역거부 학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20주년을 거치며 비전워크숍을 통해서 ‘병역거부 프로그램’의 이름을 ‘전쟁거부자 조직 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캠페인의 방향도 바뀐 것입니다. 아무래도 병역거부는 군 입영영장에 대한 거부, 다시 말해 입영영장을 받는 젊은 남성들이 행위 주체가 됩니다. 그럴 때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활동의 주변으로 밀려나기 쉽다는 것이 전쟁없는세상이 늘 걱정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운동의 평화운동, 특히 반군사주의의 맥락을 더 강화하는 것을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의 의미를 확장해서 군 입영 거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일상에서 전쟁과 연관되는 것에 불복종하는 다양한 ‘전쟁거부자’를 조직하자는 뜻으로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병역거부 학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는 이런 고민 속에서 다양한 병역거부자를 발굴하고 병역거부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입니다. 과거 병역거부운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병역거부의 양상을 발굴하고, 여성병역거부처럼 입영영장 거부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이야기도 다루고자 했습니다.

모두 6회 차 동안 연인원 90여 명이 모여서 함께 병역거부와 반군사주의 운동, 그리고 각 회차별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7월 4일 1회 차를 시작으로 8월 중순에 짧은 방학을 거쳐 9월 20일 마지막 회차까지 세 달 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참가자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병역거부의 의미, 신념, 정체성, 양심을 더 알리고 다양한 병역거부자를 조직하자는 것이 병역거부 학교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이 꾸준히 활동하는 주제인 반전운동으로서 병역거부, 그리고 최근 전쟁없는세상이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분야인 무기거래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역거부의 정체성을 확장하기 위한 주제들인 동물권, 여성병역거부, 기후위기까지 모두 다섯 차례 주제별 모임을 기획하고 마지막에 소감을 나눴습니다. ‘병역거부 학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의 두 번째 목표는 그렇게 뽑은 각각의 주제들에서 반군사주의 운동과의 교차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기거래나 반전운동의 경우 전쟁없는세상

이 해오던 활동이니 반군사주의적인 맥락을 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동물권, 여성병역거부, 기후위기 주제에서 반군사주의의 맥락을 찾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방안으로 연결하는 것은 전쟁없는세상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1회 차는 전쟁없는세상 무기박람회 저항 프로그램의 전현직 코디네이터인 쭈아와 주가 진행했는데요, 전 세계 무기거래 시장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한국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무기 팔아 돈 버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 가지는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병역거부를 살펴보고 토론을 했습니다. 2회 차에서는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안악희의 발제와 진행으로 전쟁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징병거부운동과 병역거부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3회 차는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뭉치가 진행했는데요 전쟁에 동원되고 전쟁에서 희생된 비인간동물의 역사를 짚어 보고, 전쟁이 비인간동물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그들을 착취하는지 살펴본 뒤 “채식하는 군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4회 차는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한 윤슬을 초대해 병역거부 선언을 한 이야기와 그 이후의 고민을 듣고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기후정의행진 직전에 열린 5회 차에서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군대의 탄소배출 문제점을 살핀 뒤 병역거부를 준비 중인 윤석 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6회 차는 날 좋은 가을 하늘 아래서 파티와 함께 그동안의 여정을 회고하려 했으나 비가 오는 바람에 실내 공간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마무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쿠데타를 하고 극우 세력은 법원에 난입에 폭동을 부리는 등 역사가 한참 뒤로 후퇴한 거 같기도 하지만, 병역거부 학교에 참여한 새로운 분들을 보면서는 분명 우리 사회가 일상의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과 군사주의의 폭력에 대한 성찰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주요 활동 병역거부 가이드북

2020년부터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쟁없는세상이 주장한 것처럼 재난 대응, 사회복지 등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은 아니고 교정시설에 서만 3년 동안 합숙복무를 하는, 그래서 여전히 유엔자유권위원회 등에서 개선을 권고받는 징벌적인 형태지만 어쨌든 병역거부자들이 무조건 감옥에 수감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이 추천한 진보적인 법률가, 연구자, 활동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일부 심사위원들은 ‘양심’에 대해서도,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심사 과정이 양심을 침해하

는 자리가 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해서 대체역 복무가 시작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이미 처음부터 예상했던 문제들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 고민해야 할 것들이 대체복무 도입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병역거부 가이드북>이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2023년에 새로운 가이드북을 만들자고 했지만 20주년 행사로 바빠서 미뤘고 2024년에 드디어 <병역거부 가이드북>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을 만든 직후인 2004년, 다양한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했고 수감생활 경험도 많이 쌓인 2012년에 이어서 <병역거부 가이드북> 세 번째 판본을 만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병역거부 가이드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중대한 변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대체복무 심사와 생활에 관한 내용은 심사를 받고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에 앞서 <병역거부 가이드북> 1부에서는 병역거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병역거부의 개념, 역사, 의미와 같은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반전평화운동 단체로서 전쟁없는세상의 고민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병역거부의 의미와 맥락을 전쟁 거부로 확장하는 것이 전쟁없는세상의 최근 고민입니다.

내용을 보면 1부에서는 병역거부, 2부에서는 대체복무를 다루는데요, 구성을 본다면 1부와 2부 모두 마지막에 Q&A와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Q&A에서는 병역거부가 궁금하거나 병역거부를 하려고 고민 중인 분들이 품는 질문들 중에서 뭔가 격식을 갖추고 물어보기 애매한 캐주얼한 질문과 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앞서 병역거부를 해서 감옥에 수감되었거나, 대체복무를 하고 있거나, 지금 병역거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병역거부자들이 마주하는 실제 상황과 그에 따른 고민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을 도와줄 다양한 자료—영화, 논문, 책 등도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병역거부를 고민하거나 실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소개했습니다.

2024년 <병역거부 가이드북>은 온라인 페이지도 있습니다. 종이책자를 많이 인쇄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전쟁없는세상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온라인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페이지 바로가기



PDF 다운로드



2024년 주요 활동

태국, 러시아 병역거부자 지원



전쟁에 저항하는 병역거부운동은 태생적으로 국제주의적인 운동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물론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경선을 넘나드는 침략 행위이고, 또한 현대의 전쟁은 전투의 여파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국가들 혹은 전 세계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그리고 전쟁의 여파가 이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모두의 평화를 해친다면 전쟁에 저항하는 평화운동 또한 행동의 범위와 지향이 국제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 평화활동가들과 협력하며 캠페인을 성장시켰습니다. 다른 나라 병역거부운동의 노하우와

경험을 배웠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국제평화단체들이 전쟁없는세상의 여러 액션, 국제회의, 탄원서 등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주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평화운동의 성과로 (물론 대체복무제가 문제점이 많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만큼 이제는 전쟁없는세상이 다른 지역의 병역거부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전쟁없는세상은 2024년에 러시아의 병역거부자 난민들과 태국 병역거부자 네티윗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



한 전면전을 시작한 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에 대한 동원령을 선포한 뒤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기를 거부하는 많은 러시아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러시아를 탈출했습니다. 난민이 되기를 선택한 병역거부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국으로 온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들도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5,750명의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난민 신청자의 1/3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딱 한 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 바로 러





시아 난민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외교적으로도 썩 좋은 방식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전쟁을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들 뿐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반면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면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가장 비폭력적으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전쟁 난민을 보호하는 인권적인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함께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러시아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724명이 동참해 주셨고, 5월 14일 이 탄원서를 법무부에 접수했습니다. 안타

깝게도 한국 정부는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을 여전히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최초의 병역거부자 네티윗 초티팟파이





살과 연대하는 활동도 2024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태국 군부의 쿠데타를 비판하면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네티윙은 병역 거부 선언을 했는데요, 이후 태국 민주화 운동과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운동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병역거부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2024년 말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았고 2025년에는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은 2024년 5월 네티윙이 광주에 방문하는 일로 한국에 왔을 때 네티윙의 상황을 한국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의 법률 지원금을 후원하기 위해서 ‘맛있는 민주주의’라는 팝업스토어를 열어 쌀국수와 태국식 볶음밥을 팔았습니다. 네티윙이 친구들과 함께 방콕에서 ‘Dilicious Democracy’라는 국숫집을 운영하는 데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단골 국숫집을 친구들과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저항의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없는세상은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커넥션 e.V., 웨이커 유엔 사무소 등 국제적인 평화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 정부와 국방부에 병역거부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며 네티윙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네티윙의 소식을 계속 전하면서 네티윙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다른 병역거부자들도 힘닿는 데까지 지원하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주요 활동

무기박람회 KADEX 저항행동

한국에는 항공우주 및 종합 무기박람회 ADEX, 지상무기박람회 KADEX, 해양무기박람회 MADEX, 경찰무기 및 치안산업 박람회 KPEX 등 다양한 무기박람회가 있습니다.

무기박람회에는 세계의 주요 무기 회사와 각국의 무기 획득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거기에는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국내외 분쟁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 회사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합니다. 박람회가 성공적일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되고, 더 많은 군사적 갈등이 초래됩니다.

원래 짝수 해마다 DX KOREA가 열렸는데, 수익금 배분 등의 이유로 주최기관과 주관사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라는 이름도 비슷한 두 개의 행사가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무기 회사들도 어디에 참가해야 할지 몰라 애먹었다는 후문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10월 2~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KADEX를 대상으로 저항행동을 펼쳤습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 출범

전쟁없는세상은 2013년부터 홀수 해마다 열리는 무기박람회 ADEX에 대응하는 연대체 아덱스저항행동의 구성 단체로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날이 성장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무기산업과 무기박람회에 맞서 우리도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아덱스 저항행동을 ‘무기박람회저항행동’으로 개편했습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KADEX 개막 한 주 전인 9월 25일에 출범했고, 구성 단체가 서울 지역 5개 단체에서 서울, 대전·충남, 부산·경남, 제주 등 전국 19개 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출범 기자회견과 강연을 비롯해 무기박람회 KADEX 기간 중 환영 만찬 방해 행동, 퍼블릭데이 액션, 무기박람회 다크투어, 릴레이 기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강연 <전쟁의 시대, K-방산의 책임>

2024년 처음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KADEX에 대응하고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의 출범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9월 26일 대전-충남 지역에서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전 세계 무기 거래와 한국 무기 수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충남 논산에 들어서고 있는 비인도 무기 확산 탄 공장 건설 반대 운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 만찬 방해 행동

KADEX 개막 첫날인 10월 2일 대전 오노마 호텔 앞에서 무기상인들과 ‘VIP’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만찬장 창문을 통해 잘 보고 들을 수 있게 “전쟁장사 중단하라”, “YOU’RE NOT WELCOME HERE(당신들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 등의 구호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로 큰 소리를 내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 때 첫 출전한 피스 탱크 ‘피크’도 함께 했습니다.

퍼블릭데이 액션

무기박람회 기간에는 무기상인들과 ‘VIP’들 외에 많은 일반 관람객 역시 전시를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습니다. 무기와 군사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되는데요.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이 방문합니다.

퍼블릭데이 첫날인 10월 6일 행사장 입구 앞 사거리에서 KADEX에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KADEX가 오락을 위한 행사가 아닌,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역





시 ‘피크’도 출동했습니다.

무기박람회 다크투어

무기박람회 다크투어를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시장 안에 투어를 한 것인데요, 이 무기가 어떤 첨단 기술의 집합체이고 얼마나 잘 팔리는지가 아니라, 이 무기가 실제로 어디에서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끔찍한지 이어폰으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주최 측의 ‘반전시위단체 출입금지’ 조치로 실랑이도 있었지만 다행히 무기박람회 다크투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 21 기자가 직접 다크투어에 참여해 〈사람 해쳤던 무기 앞에서 각 잡고 ‘인증샷’〉이라는 기사를 후기로 남기고, 가이드로 활약한 뭉치가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확산탄 전시 비판

KADEX의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부스에 비인도 무기 확산탄이 전시되었습니다. KDI는 2020년 한화에서 비인도 무기 부문을 분리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KDI는 논산에 신규 확산탄 공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논산시민대책위와 함께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주요 활동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 감시

전쟁없는세상은 2013년부터 바레인, 튀르키예, 스리랑카 등으로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되어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드는 것에 대응해 왔습니다. 2014년 바레인, 튀르키예로 최루탄 수출 중단이라는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치안산업 박람회에 물대포, 차벽, 경장갑차 등 시위진압 장비들이 전시 및 판매되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물대포는 태국에서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한국에서도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죽음에 이른 백남기 농민의 사례가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문제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이후로 물대포는 치안산업 박람회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2024년에도 방글라데시에서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데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된 것에 대한 논평을 발행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활동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한계를 인식하여, 경찰무기와 관련해 자료 축적 등의 기초 활동을 진행해 왔고, 그것이 2024년 처음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치안산업 박람회 현장 조사

10월 23~2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이 열렸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행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엄지수갑, 전기충격봉 등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금지 및 규제 권고 품목 일부가 전시 및 홍보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경찰무기 감시 워크숍

11월 6일과 8일에 이틀간 열린 워크숍은 오메가연구재단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메가연구재단은 군사, 보안 및 경찰 무기와 장비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영국 단체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웨스트파푸아의 활동가들이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첫날에는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 기준들, 한국이 제조, 수출 및 사용하는 경찰무기 품목 등을 다뤘습니다. 둘째 날에는 경찰무기와 장비의 제조, 수출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틀간의 워크숍은 경찰무기 감시 활동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집 발간

12월에는 전쟁없는세상이 지난 10년 동안 모은 자료를 취합해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 및 남용 실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한국이 1980~90년대 최루탄 사용국에서 오늘날 수출국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부터 최근 10년간 한국산 최루탄 수출 현황, 한국산 경찰무기 남용 사례, 경찰청의 최루탄 수출 허가 자료 등이 실렸습니다.



경찰무기 가이드북 바로가기

2024년 주요 활동

무기산업&대체복무 정보공개 활동



대체복무 매뉴얼

현역 복무자와 달리 대체복무자의 복무 조건을 규정하는 ‘복무관리 매뉴얼’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거부자 장길완 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법무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부분공개 처분에 대해 취소할 것을 판결했고,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비인도 무기 감시

전쟁없는세상은 매년 국제지뢰금지운동-확산탄금지연합(ICBL-CMC)의 의뢰로 한국의 대인지뢰·확산탄 생산 및 수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산탄과 대인지뢰는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대표적 비인도 무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도 정보를 숨기거나 모호한 표현을 쓰는 수법으로 관련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일례로 해양유도무기사업팀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가, 이의제기

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 자료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그제야 확산탄 품질개선 예산 및 후속양산 준비를 위한 예산이라고 답하는 식이었습니다.

레바논 산탄총 미스터리

하루는 무기 수출입 자료를 보다가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한국이 2019년 5월 레바논에서 약 4억 달러(6000억 원)어치의 산탄총을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관세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봐도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통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국회를 통해 알게 된 사건의 진상은 산탄총 수입이 아니라, 레바논에 파병되었던 동명부대에서 쓰던 기관총을 재반입한 것이었고, 4억 원을 달러로 확산하지 않고 세관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감사 이후 품목 코드 및 금액 정정을 완료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행정 오류를 지적해 줘도 오리발만 내미는 한국 정부, 한심하지 않나요?

무기 수출입 통계

무기 수출입 통계는 무기산업과 군사·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감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모든 품목의 통계를 공개하면서 오로지 무기류 통계만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이없는 사실은 관세청이 이 소송이 시작된 이후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더욱 꼭꼭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그나마 공개되던 정보를 비공개로 돌렸고, 심지어 유엔 무역통계에 보고한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기박람회 예산

2024년 무기박람회 KADEX와 DX KOREA에 정부 예산이 얼마씩 투입되는지, 그리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초청하는 ‘VIP’들의 국가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에, 행정심판도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VIP’ 명단은 행사가 끝난 뒤에 주최측이 발행한 결과 보고서에 버젓이 나온 정보인데도 말이죠.

2024년 주요 활동 기후액션캠프



기후운동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조직된 시민운동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군사주의 간의 깊은 연관성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다루는 장기적인 캠페인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쟁없는세상은 2023년 20주년 비전워크숍을 계기로 기후위기와 군사주의를 연결하는 캠페인 개발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에는 평화단체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심층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탐구했습니다.

—군사부문의 탄소배출 문제 (특히 전시 상황에서의 배출량)

- 기후위기 대응과 군사비 지출의 상충관계
- 기후변화가 무기거래에 미치는 영향
- 군사분야의 그린워싱 현상
- 방위산업의 기후영향과 정의로운 전환 방안
- 기후위기로 인한 안보 위협과 난민 문제
- 기후정의와 녹색군사주의의 관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8월에는 ‘평화캠프: 기후액션캠프’를 개최하여, 위 주제들 중 네 가지(전쟁무기로서의 생태학살, 군대의 탄소발자국, 군비지출과 기후위기, 무기거래와 기후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후운동과 평화운동에 관심 있는 30여 명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캠프는 대추리 평택평화센터에서 진행되었



으며, 첫 프로그램으로 캠프 험프리스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피해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산공군기지 확장으로 인한 대규모 탄약고 건설 현장

—헬기와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송화리 지역

—미군기지 경계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 피해 지역

이 어진 저녁 세션에서는 ‘불복종 (Disobedience)’ 다큐멘터리 상영과 함께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의 강연을 통해 한국 기후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 영역별로 개입 지점을 분석했습니다: 파괴, 생산, 판매, 소비, 결정, 일상, 기억의 장소. 각 영역별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캠페인과 창의적 액션을 설계했으며, '액션스타' 도구를 활용하여 각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논의를 실천으로 옮기는 첫걸음으로, 9월 7일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피스메이커 모여서 함께 걸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자체 제작한 ‘피스 탱크’와 함께 평화블록을 구성하여 기후위기와 군사주의의 연관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9월 21-28일에는 최초로 기획된 전 세계 공동행동주간(Global Week of Action)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일정상 이 국제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는 못했지만 기후위기와 군사주의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들은 2025년부터 본격화될 전쟁없는세상의 활동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주요 활동 이스라엘 전쟁범죄 대응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은 2024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4만 6000명을 넘어섰고(2025년 1월 기준), 공습으로 수많은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무기 회사들은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서명운동을 2023년 말에 진행했고, 국내외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전쟁없는세상이 속한 아덱스저항행동(현 무기박람회저항행동)과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대전 방위사업청 앞에서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활동가와 종교인의

발언, 퍼포먼스, 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서명도 이때 방위사업청에 제출했습니다. 3월 20일에는 같은 주제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월 28일 HD현대건설기계 주주총회장 앞에서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HD현대의 굴착기가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마을 가옥 파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에 대한 HD현대의 책임을 묻고,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월 2일 아덱스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기자회견과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미



Studio R.

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각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규탄 공동 행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관련해 블로그에 두 편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의 양동민 활동가는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호소에 응답하는 각국 노동자들의 사례를 소개했고, 최성용 연구자는 팔레스타인과 가자 학살을 식민주의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도 함께한 시민사회의 이런 반대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스라엘에 약 600만 달러(84억 원)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2024년 전쟁없는세상은 그밖에 무엇을 했나요

아무래도 활동보고서라는 것은 한 해 동안 단체가 진행했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고 외부적으로 잘 알려진 활동들을 주로 포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은 중요하지만 언론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슈도 많고 행사를 위해서 또 조직운영 측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 꼭지는 그런 활동들을 모두 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Q 손희정 선생님을 초청해서 연 여성의 날 특강 <전쟁이라는 파국, 젠더라는 균열>부터 얘기해 보자. 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다.

가람: 3.8 여성의 날을 맞아 군사화된 세계에 균열을 내는 페미니즘을 영화 이야기로 풀어보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한 특강이었다. 전쟁이 일상인 시대에 군사화된 정치, 외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침 문화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손희정 선생님께서 <손상된 행성에서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기>라는 책을 내셨는데 “군사주의적 상상력은 지구를 어떻게 손상시켰는지”, “할리우드가 그리는 여성 영웅은 왜 늘 군인의 모습인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며 쓴 책이라고 했다. “젠더화된 군사주의, 군사화된 젠더에 우리는 어떤 균열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라는 전쟁없는세상이 가지고 있던 고민의 연장선이어서 너무 반가웠다.

악희: 8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장소를 꽉 채워주셨는데 최근 전쟁없는세상이 기획한 오프라인 행사 중 드물게 많은 인원이 모인 자리였다. 기획의도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기뻐다. 저

자는 파국을 상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려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파국을 좌절하며 외면하기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이제 다 끝났다는 식의 냉소에도 빠지지 않았다. 이 태도가 페미니즘 인식론의 아름다움이라고 저자는 설명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도 너무 좋았다.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전쟁에 저항하는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이 군사적 저항을 주된 방식으로 채택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입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페미니스트 그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기 지원 호소에 응답하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전쟁터와 멀리 떨어진 한국에 사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비판해야 하는가?’ 등의 얘기가 오갔다.



Q 2024년에도 4월에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캠페인이 있었다. 2023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이 세계 11위를 차지했고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2조 4,430억 달러(약 3,373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쭈야: 그렇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군비는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중동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2023년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1위로 작년 9위에서 두 계단 내려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는 2.8%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에 이어 5번째로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군사주의가 점점 강화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지금도 휴전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4

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은 잠정적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상황은 매우 참담했다. 현재의 휴전도 다행스럽긴 하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쟁은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모든 존재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역시 가속화하고 있다.

주: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국내 인권, 복지, 교육,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이 불러오는 영향을 살펴보고 군사비를 줄이면 가능한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예산 삭감에 성난 사람들: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도 진행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다. 기후위기나 재난 대응에 대한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예산이 있었다. 바로 국방예산인데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4조 원이었다. 한국형 3축 체계와 무인기 등 무기도입 비용, 방위력 개선과 전력 운영비가 특히 증가했다. 계속되는 군사비 증액은 끝나지 않는 무한군비경쟁과 사회안전망에 쓰일 사회적 비용의 축소로 이어졌다.

Q 신재욱 활동가의 논문 <군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체화 과정 연구: 1987-1993 군인·전경 양심선언을 중심으로>가 나왔다. 전쟁없는세상은 이전에도 간간히 군도바리, 양심선언, 병역거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오지 않았나.

우공: 맞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인터뷰이 한 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했다. 병역거부 운동 역사에서, 군 민주화의 역사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무척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거나 조명되지 못한 1980년대~1990년대 군인들의 양심선언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취지였다. 특히 토크쇼 초대에 어렵게 승낙해 주신 한장호(가명) 선생님은 병역거부운동이 막 태동하던 2001년에 활동가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기도 했었는데 20년도 더 지나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어 다들 벅찬 기분이었다. 당시 양심선언자들과 병역거부운동을 연결하려는 전쟁없는세상의 노력은 이전에도 간간히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12년

병역거부 역사전시회에서 1991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열군) 박석진 활동가의 양심선언 내용이 등장한 것이다.

꾸야: 논문은 양심선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여성활동가 포함 당시 운동가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이 운동을 다면적이고 풍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저자 본인도 본문에 밝힌 것처



럼 식사과정생이면서 열군 활동가라는 정체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업세 행사를 비롯한 논문 발간 행사에 참석하신 논문의 인터뷰들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입밖에 내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재욱 연구자/활동가를 믿으셨다고 말씀하셨다. 논문을 책으로 낼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서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Q 사무국 이용석 활동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라는 책을 출간했다. 블로그에 실린 서평에 ‘저자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름을 책 제목에 넣으며 개인 책 홍보와 단체 홍보라는 일타쌍피의 업적을 이뤄낸 기세’가 부럽다는 구절도 있다.(웃음)

용석: 이 책은 초록비책공방의 ‘좋은 시민이 되고 싶어’ 시리즈 중 하나로 기획된 것이다. 주제가 전쟁과 평화였기 때문에 제목은 자연스럽게 붙여졌다. 이래서 단체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 지금까지 모두 세 권의 책을 냈다. 이제 밀천이 떨어져서 다음 책을 쓰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 책은 내가 쓴 첫 책 <평화는 처음이라>의 중학생 버전이다. 십 대 초중반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책을 썼다. 첫 번째는 비 이성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폭력이 지속되는 세계에서 독자들이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 세 번째는 군사주의에 대해 서술하되 독자들이 십 대라는 것을 생각하며 가능하면 영화 등의 일상과 연관



지으려 한 것이다.

몽치: 그래서 이 책의 토크쇼에는 오랫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를 위한 소설을 써오신 김 중미 작가님을 모셨다. 저자와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 전쟁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평화 실천에 대한 이야기, 전쟁의 시대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평화를 가꾸는 이야기 등등을 들려주셨는데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여자들도 다른 전쟁없는세상 행사와 비교해 교사나 청소년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한 청소년 참가자는 군수산업체들이 게임회사와 협력하거나 혹은 게임산업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Q 2024년 국군의 날에도 시가행진이 있었다. 계엄이 터지고 보니 친위쿠데타를 위한 예행연습이 아니었나 하는 타당한 의구심마저 드는데.

오리: 그렇다. 시가행진을 포함한 국군의 날 행사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313조, 제314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취임 첫해에만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훈령을 개정해 ‘필요시 언제든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군사독재정권 이후 처음으로 42년 만에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시가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훈령 개정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 2023년 윤석열 정부 첫 해에 진행된 시가행진도 1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화해 국면에 따라 시가행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없는세상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다른 평화단체들과 함께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용석: 2023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계엄군 동원의 예행연습이 아니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혁명을 기념하며 퍼레이드를 하는 프랑스 같은 나라를 제외

하면, 군사 퍼레이드는 독재 국가나 군국주의 국가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시가행진을 하지 않는다. 2023년, 2024년 국군의 날 행사에는 각각 101억 원, 79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시가행진을 진행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2021년에 각각 12억 원, 13억 원이 든 것과 대조적이다. 이 많은 예산과 돈으로



도 측정되지 않은 병사들의 노동이 전시성 행사에 낭비됐다.

Q 지상군 무기박람회 DX Korea를 반대하는 행동을 한 평화활동가 8인(aka DX8)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무죄가 나왔던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

문치: 2023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피고인들이 행사 관계자나 관람객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서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고, 평화활동가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추상적 위험이 존재했다는 취지로 각 50만 원의 벌금,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우공: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 평화행동에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무기거래의 비윤리성이라는 맥락을 삭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고 생각한다. 2023년 있었던 종합 무기박람회 ADEX 저항행동으로도 역시 활동가들 4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무리하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3명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1명은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가 되었다. 일선에서 다양한 직접행동을 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무기박람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무기거래의 본질을 드러내는 평화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의 시민으로서, 평화활동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몫이다.

Q 작년 전쟁없는세상 블로그를 총 정리해 달라.

쥬: 작년에 총 77편의 글이 전쟁없는세상 블로그에 실렸다. 필진의 비율은 남성과 비남성이



거의 비슷하고 30대 필진의 비율이 높았다. 주제도 다양했다. 여성 평화활동가 에세이 기획 연재,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인터뷰, 무기박람회 저항행동,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이야기, 전쟁을 다룬 보드게임까지. 연말에 가장 인기 있었던 블로그 게시물 TOP10을 뽑아서 뉴스레터로 내보내기도 했다. 특히 2030 여성평화운동가들의 에세이가 인기가 좋았다.

Q 전업체 내에서 비폭력트레이닝을 전처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에서 간간히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다.

오리: 그렇다. 비폭력트레이닝이 더 이상 전쟁없는세상의 주요 프로그램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주로 캠페인전략이나 직접행동 관련한 요청이 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한 단체나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저연차 활동가 대상 혹은 중간연차 활동가 대상 등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특정 연차군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을 주셔서 협업을 하기도 하였다.

Q 그리고 12월 3일 끝판왕 게임이 선포되었다. 다른 사회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전업체 활동도 부득이하게 수정을 해야 했을 것 같다.

가람: 게임 다음 날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전쟁에 맞서 평화를 위해 행동을 하다가 구속되거나 구금된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날로 2003년부터 해마다 해오고 있



었는데 2024년 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그날 밤부터 매일 진행되던 탄핵촛불에 합류했다. 12월 3일 전쟁없는세상도 뉴스를 지켜보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그날 새벽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2차례의 성명, 1차례의 병역거부자들의 긴급성명을 발행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허약성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어 유감이다. 하지만 16,000명의 사람들이 계엄군보다도 먼저 국회에 도착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직원들의 월당을 돕고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본 것은 유일한 희망이다. 이들은 비폭력 트레이닝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무엇이 중헌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했다.



악희: 군대와 징병제를 문제 삼고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해 온 전쟁없는세상의 입장에서는 이번 친위쿠데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계엄에 동원되는 군대에 내가 입대해야 하나? 현역으로 복무 중인데 부당한 명령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복무할 수 있을까? 예비군인데, 자국민 대상으로 군사작전 하는 군대의 예비군 훈련을 내가 받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 행사도 준비하긴 했었는데 12월 3일 이후 매일의 상황이 계속 바뀌고 특히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이후 정세가 쿠데타와 탄핵에서 극우 정치의 등장으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세로 바뀌다 보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행사를 일단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쟁없는세상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관련한 고민이 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2024년 타임라인

-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집회

1월

- 손희정 특강 <전쟁이라는 파국, 젠더라는 균열>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 촉구 성명
- 더불어민주당의 병역거부 공천배제 규탄 성명
-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 HD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가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마을 가옥파괴 규탄 기자회견

3월

-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규탄 5.2세계 공동 행동의 날 집회
- 박노자 강의 <러시아는 왜 전쟁을 멈출 수 없는가>
- 태국 병역거부자 네티윗 후원 팝업스토어 <맛있는 민주주의>
-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 촉구 기자회견/탄원서 제출
-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5월

- 병역거부 학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신재욱 논문 발간 행사 <군도바리, 양심선언, 병역거부>
- DX 8 항소심 재판 시작

7월

- 병역거부 학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이용석 활동가 책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출간 기념 북토크
-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비판 및 무기박람회저항행동 출범 기자회견
- 무기박람회저항행동 강연 <전쟁의 시대, K-방산의 책임>
- 907 기후정의행진

9월

- 2024 대체복무 표류기 연재
- 경찰무기 감시 워크숍

11월

2월

- 전쟁없는세상 총회

4월

-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 촉구 탄원

6월

- 양심의 자유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법 합헌 결정 비판 논평
- 무기박람회저항행동 간담회 (서울/대전/부산)

8월

- 병역거부 학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2024 평화캠프: 기후액션캠프
- 한국 정부의 경찰무기 수출통제 강화 촉구 논평

10월

- 2024 병역거부 가이드북 발간 기념 토크
〈병역거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국군의 날 논평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열리는 ‘전쟁퍼레이드’〉
- 태국 국방부에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서한 발송
- 무기박람회 KADEX 저항행동
- 국제치안산업대전 현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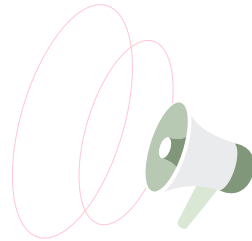
12월

- 2024 대체복무 표류기 연재
- 자료집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 및 남용 실태〉 발간
- 12.3 계엄 관련 성명
 - 〈계엄령을 거부하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에 불복종하자〉
 - 〈대한민국 군인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라〉
 - 〈국회의 탄핵 부결을 규탄한다〉

전쟁없는세상 2024 재정보고

2024년 전쟁없는세상 수입은 2023년에 비해 약 3,000만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2023년이 전쟁없는세상의 20주년으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했던 2023년을 제외하면 전쟁없는세상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기, 일시 후원인들의 후원금, 직접행동 기금, 회비로 함께해준 후원인들이 많았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줄어든 수입에도 2024년 지출은 2023년에 비해 약 300만 원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비해 활동가의 근무일수를 하루 줄였는데도 사업비가 크게 는 것은 20주년 비전워크숍에서 결정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시작하느라 분주히 바쁜 한 해를 보냈던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전쟁없는세상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새로운 20년의 출발을 위한 필수적 지출이었습니다.



수입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비율(%)
후원금	정기후원	64,713,964	50.3
	비정기후원	11,082,620	8.6
기타 사업 수입	강사료, 연대사업수입 등	2,747,980	2.2
수입이자		36,079	0.0
일반보조금		0	0.0
지원금		49,771,002	38.7
잡수입		65	0.0
회비수입		210,000	0.2
총계		128,561,710	100

지출 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비율(%)
인건비	급여	69,600,000	48.4
	법정복리비	8,524,030	5.9
	복리후생비	1,251,660	0.9
	퇴직급여	6,120,000	4.3
운영비	회의비	1,620,614	1.1
	통신비	2,239,728	1.6
	우편발송비	346,440	0.2
	영상제작인건비	1,085,800	0.8
	사업관리비	332,815	0.2
	사무용품비	543,710	0.4
	지급수수료	5,378,839	3.7
	지급임차료	3,602,700	2.5
사업비	연대사업비	700,600	0.5
	영상제작인쇄비	9,217,300	6.4
	우편발송비	50,390	0.0
	사업행사비	2,099,740	1.5
	통신비	1,628,117	1.1
	지급수수료	23,832,118	16.5
	지급임차료	4,443,000	3.1
사업 외 비용	잡손실	30	0.0
총계		143,893,131	100

2023년 이월금	2024 총수입	2024 총지출	2024 이월금
40,822,823원	128,561,710원	143,893,131원	25,491,402원

프로젝트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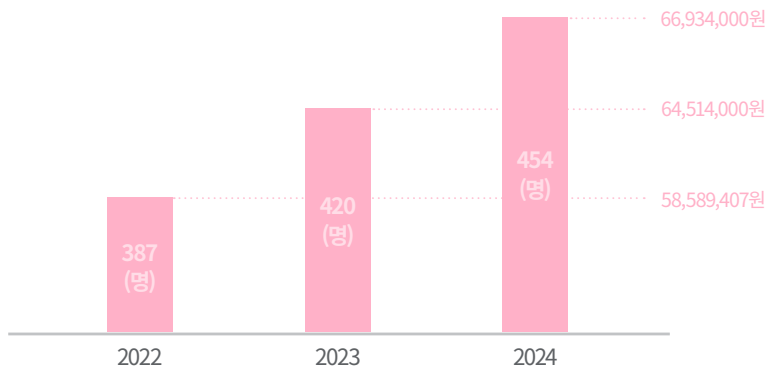
사업명	지원처	금액(원)
2024 한국산 무기수출 반대캠페인	바보의 나눔	20,051,870
대체복무 신청자를 위한 안내서 제작 및 교육 상담	국가인권위	8,979,054
기후×군사주의 캠페인 빌딩을 위한 기후액션스쿨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	2,735,878
전쟁없는세상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	Connection	5,990,000
러시아 병역거부 난민 지원 캠페인	Connection	4,401,810
Strengthening investigation of South Korea's police weapons exports to Asia	하인리히뵐재단	7,612,390
총계		49,771,002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인들

2024년 한 해 동안 모두 465명의 개인과 단체가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셨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61명의 후원인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7명이 개인 사정으로 후원을 중단해서, 2024년(12월 31일 기준)에는 전년 대비 8% 성장(34명 증가)하여 모두 454명의 정기후원회원이 전쟁없는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정기후원 회원 변화 추이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해주세요

전쟁없는세상은 우리의 활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과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 대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상근자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각종 캠페인 사업비 등 단체의 여러 활동에 사용됩니다.

정기후원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평화 행동에 쏟고 싶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안정적인 활동비를 만들어 주세요.



비정기·일시후원

살상 무기 거래에 반대하고 병역거부자와 함께
전쟁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만들어 주세요.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
비폭력 직접행동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박람회 저항행동, 다양한 병역거부 등 다양한
직접행동의 실행, 벌금, 재판 비용 등으로 쓰입니다.



후원안내

withoutwar.org/donate

문의: 02-6401-0514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2-921333

예금주: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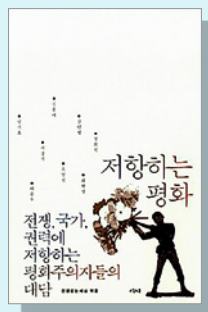
전쟁 없는 세상 비폭력의 의미를 묻는 당신에게
마이켄 울 쇠렌센 지음, 최정민 옮김, 전쟁없는세상 기획

비폭력 시민 저항을 말하는 한 평화주의자와 이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회의론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폭력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오래된 환상을 깨뜨려줄 대화가 담긴 책입니다.

저항하는 평화 전쟁,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평화주의자들의 대답

엄기호, 김종대, 강인철, 정희진, 서경식, 조영선, 하승우,
최현정 지음, 전쟁없는세상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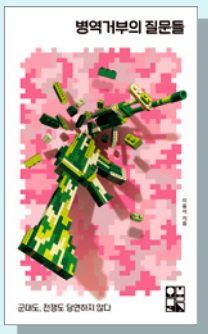
징병제, 청년, 종교, 젠더, 국민국가, 교육, 비폭력운동, 트라우마를 주제로 군대와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평화운동가들과 냉철한 시선으로 권력을 해체하는 각계 지식인들의 대답을 엮은 책입니다.



어둠의 세계 무기 산업을 둘러싼 부패의 내막과 전쟁기획자들

앤드루 파인스타인 지음, 조아영, 이세현 옮김

1차대전 전후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방대한 자료를 아우르며 전쟁이 ‘산업’이 된 역사를 되짚고, 이 무기거래 산업에 뛰어든 수많은 인물들을 소환하며 고발하는 책입니다.



병역거부의 질문들 군대도, 전쟁도 당연하지 않다 이용석 지음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군사주의와 전쟁, 징병제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온 병역거부운동과 평화운동을 둘러싼 이야기를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전하는 책입니다.



전화 02-6401-0514

이메일 peace@withoutwar.org

홈페이지 withoutwar.org

페이스북 facebook.com/withoutwar.org

인스타그램 [@withoutwar](https://www.instagram.com/withoutwar)

